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인생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심리 ·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이난지 학우



사무실 한 칸에 이난지 학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난지 학우의 업무 중 하나인 금연지원과 관련된 유인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 잡지사, SK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홈페이지 기획 및 제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3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맞이해 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마음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상담교사가 되어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추천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했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금연상담사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며 꿈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업으로 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커리큘럼에 맞춰 꾸준히 강의를 들었고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동영상 강의 시간,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습 수련 과정을 거쳐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기에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니 진로의 좌표가 구체화됐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과 선배들, 동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 스터디 모임 등 자격증 취득 대비 공부를 함께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담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의 강연은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솔함을 나누었고, 이는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기꺼이 동반자가 돼주었고, 제가 내딛는 발걸음에 좌표를 제시해주었습니다.